

# 푸틴·트럼프 특사, ‘우크라 종전’ 심야 마라톤 협상

푸틴, 일부 안 수용 속 “유럽이 평화 방해” 날 선 비판  
영토 문제 등 美 제안 19개 종전안 놓고 줄다리기 계속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단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심야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평화 노력에 대해 일부 수용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유럽 국가들이 평화 프로세스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3일 로이터 통신과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스티브 워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 트럼프의 민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측 대표단과 회동했다.

이날 회담은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과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배석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분수령으로 평가받았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특사의 대화는 매우 유용하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측이 제시한 계획 중 일부 조항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수용 불가능한 조항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양측은 종전 협상의 가장 민감한 뇌관인 영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종전안의 세부적인 문구보다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까지는 길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지난달 30일 플로리다 고위급 협상과 23일 스위스 제네바 협의를 통해 도출된 수정 종전안을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은 우크라이나 병력 규모를 60만명으로 제한하고 나토(NATO) 가입 금지를 현행에 명

시하며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28개 항의 종전안을 마련했으나,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19개 항으로 축소된 상태다.

주목할 점은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유럽 국가들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투자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는 유럽과의 무력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음에도, 유럽 측이 대결을 원한다면 우리 역시 즉각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유럽 국가들은 실질적인 평화 의제 없이 전쟁을 자속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수정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평화 프로세스 전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흔수”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논의 중인 종전안 수정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유럽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유럽 패싱’을 유도하며 트럼프 측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평화를 원하며, 평화 협정 체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책임을 서방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나토와 유럽 측은 러시아가 협상을 지연시키며 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동맹은 굳건히 단결되어 있으며, 러시아는 유럽 내에서 나토를 암도할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워트코프 특사는 과거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러시아 측 통역에 의존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 통역사를 대동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번 만남을 “생산적이었다”고 짧게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푸틴(뒷줄 왼쪽 두번째)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미국 측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협의 중이다.

/연합뉴스

## 미 “마약선 격침 작전 이제 시작”…지상으로 확대

헤그세스 장관, 작전 적법성 강조…트럼프, 카르텔 전방위 압박 예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남미 국적의 마약 밀수선 격침 작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해상에서 진행되던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등 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였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이 마약 밀수선으로 간주한 선박들을 격침하는 것에 대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 선박을 타격해 테러리스트들을 수장시키는 작업이 막 궤도에 올랐다면, 이들이 미국 국민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21차례의 선박 격침과 80여명의 사망자를 낸 미 해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9월 2일 베네수엘라 선박 격침 당시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해 살해한 사건이 ‘전쟁 범죄’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 그는 “당시 현장에 ‘전쟁의 안개(불확실한 상황)’가 있었다”며 자신은 2차 공격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는 해당 명령을 내린 프랭크 브래들리 해군 제독을 적극 응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휘관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은 옳았다”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서 판단을 내리고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지휘관들을 100%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 해군이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해 무력 충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카에다나 ISIS와 같은 지정된 테러리스트 집단”이라며 물리적 해결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킹슬리 월슨 국방부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작전이 미국법과 국제법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거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선을 지상으로 넓힐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는 해상 공습 덕분에 미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공습을 지상에서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마약 밀매자들의 경로와 거주지, 제조 시설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작전 수행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싱가포르, 올해 사형 집행 17명…22년 만에 ‘최다’

싱가포르가 올해 들어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인 1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주 이틀에 걸쳐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싱가포르 당국이 올해 살인 및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을 집행한 인원은 총 17명이다. 이는 19명을 기록했던 지난 2003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집행된 9명 중 8명이 마약 관련 사법일 정도로 싱가포르는 마약 범죄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그동안 유엔(UN)과 각종 인권단체는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집행 중단을 요구해왔다. 싱가포르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행을 잠정 중단했으나 2022년 3월부터 재개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워트코프 특사는 과거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러시아 측 통역에 의존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 통역사를 대동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번 만남을 “생산적이었다”고 짧게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파베르제의 달걀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황실 가족들의 부활절 선물을 위해 당대 최고의 보석 세공 명장 구스타프 파베르제에게 의뢰해 만든 공예품이다.

1885년부터 1917년까지 제작됐으며, 작품 하나가 완성돼 전달된 직후에야 다음 작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총 50개만 만들어졌다.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달걀은 이번에 낙찰된 원터 에그가 2290만 파운드(약 444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 2007년 기록된 종전 최고가 890만 파운드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연합뉴스

## 러 황실 보물 ‘파베르제의 달걀’ 444억 낙찰



러시아 황실의 전설적인 보물 ‘파베르제의 달걀’(사진)이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영국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파베르제의 달걀 중 하나인 ‘원터 에그’가 2290만 파운드(약 444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 2007년 기록된 종전 최고가 890만 파운드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파베르제의 달걀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황실 가족들의 부활절 선물을 위해 당대 최고의 보석 세공 명장 구스타프 파베르제에게 의뢰해 만든 공예품이다.

1885년부터 1917년까지 제작됐으며, 작품 하나가 완성돼 전달된 직후에야 다음 작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총 50개만 만들어졌다.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달걀은 이번에 낙찰된 원터 에그를 포함해 전 세계에 단 7개뿐이며, 나머지는 실종되거나 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다.

/연합뉴스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 QR코드: 법원경매정보원으로 접속됩니다.

<경매 8계>

법원경매정보원

&lt;p